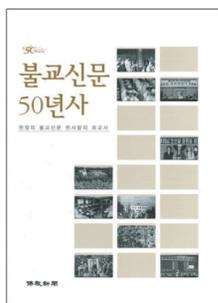




지난 9일 불교신문 창간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사부대중 1000여명이 행사장에 모여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신문 50년사’ 발간 “한국불교 반세기 고스란히”



한국 근·현대 불교사와 함께해온 불교신문 50년의 발자취가 담긴 책이 발간됐다. 불교신문사(사장 선목스님)는 지난 9일 1960년 창간 이후 종단의 발전과 함께 해 온 기록인 <불교신문 50년사>(사진)를 발간했다. 창간 50주년을 기념해 발간된 <불교신문 50년사>는 △불교신문의 변천사 △불교의 등불, 사회의 목탁 불교신문 50년사 △불교신문이 걸어온 길 3부로 구성됐으며, 불교신문 창간사와 더불어 창간호, 지령 100호, 200호, 300호, 2000호 특집

신문 전면, 신문사 연혁 및 창간 이후의 주요 약사 등이 수록됐다. 1부 ‘불교신문의 변천사’에서는 ‘대한불교’, ‘大韓佛敎’, ‘불교신문’ 등 본지 제호 변화의 과정을 비롯해 구독료 및 사옥 변천사, 신문으로 읽는 한국불교의 역사 등이 수록됐으며, 특히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사건 가운데 주요 사건을 간추려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편집한 ‘사진으로 보는 불교신문 50년’을 통해 독자들에게 하여금 한국불교 50년의 역사를 한눈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2부 ‘불교의 등불, 사회의 목탁 불교신문 50년사’는 1960년 창간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사건을 시대적 상황, 종단 약사와 함께 연도별로 정리해 불교신문 반세기 역사를 생생하게 담고 있으며, 3부 ‘불교신문이 걸어온 길’에서는 불교신문 신춘문예, 불교신문이 만든 책들, 불교신문을 거쳐간 사람들, 현직 임직원 소개 등을 다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불교신문 발행인)은 발간사를 통해 “불교신문의 지난 50년 세월 속에는 종단과 사회의 고난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며 “이제 다시 50년의 세월을 바라보며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으로 변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불교신문에 대한 전 종도들의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옆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소통의 길라잡이 화합의 들머로 자리매김”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동여메는 끈〉

1960년 1월1일 불교계 최초 언론으로 출범한 불교신문이 올해로 창간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는 축하행사가 지난 9일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리셉션은 불교신문의 창간 정신을 재확인하고 과거 업적을 조명하며 사부대중이 함께 미래 50년을 만들어 나가자고 선언하는 자리가 됐다.

5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반영하듯 리셉션에는 종단을 대표하는 스님뿐 아니라 정·관계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불교신문의 발전이 종단과 한국불교의 발전과 연결됨을 역설하며 불교신문의 미래 영광을 위해 함께 준비하고 정진해 나가자고 한결같이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원 종민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리셉션에서는 종단에서 주요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은 “불교신문은 소통의 길을 잃은 이에게 길라잡이로서 화합을 다지는 들머로서 모든 이웃과 함께 하는 불교를 모토로 탄생한지 반세기가 흘렀다”며 “이런 의지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불교신문 발행인인 총무원장 스님과 사장 스님 등 임직원, 독자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이사장 정연스님은 “불교신문은 창간할 때부터 모든 스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종단의 언론이며 공평한 살림 속에서 불교신문 한 부 더 보고 챙겨서 돌본 전국의 사찰과 스님이 바로 불교신문의 주인”이라며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찬 한국불교의 미래처럼 불교신문 창간 50주년을 축하하는 이 자리는 더욱 미래를 향해 내딛는 가슴 벅찬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은 “불교신문의 태동은 정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였으며 정화의 한가운데 구심점이 됐고 지금의 조계종단이 있게 한 불교신문의 공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설”이라며 “이제 하늘의 뜻을 아는 지천명인 50세의 불교신문으로서 작은 의견, 짧은 생각도 소중히 받들고 들어서 크고 넓게 키우는 우리의 불교신문으로 더욱더

종단·사회 각계 인사 대거 참석 ‘성황’ “창간정신 재확인...미래불교 함께 가자”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불교신문은 부처님 마음을 모든 중생에게 골고루 퍼서 이익과 행복의 길을 가도록 제시하며 50년을 살아왔다”며 “앞으로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해 모든 국민들의 지지가 되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 각계 인사들도 불교신문 50주년을 축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바,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온 부처님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세계국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G20정상회의의 성공개회를 위해 불교신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우리나라는 물질과 경제면에서는 가장 성공한 나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신과 신앙면에서는 세계를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며 “불교는 수승한 교리를 갖고 있으므로 불교신문을 중심으로 부처님과 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세계와 동아시아를 융합하고 평화를 이끄는 지혜와 광명의 등불을 밝히기를 부탁하며 불교신문 발전을 위해 나 또한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종단과 사회 주요 인사들은 7m에 이르는 불교신문 창간 50주년 축하 떡을 함께 자르며 미래 100주년을 맞이할 불교신문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불교신문은 창간 5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역사와 행적을 정리한 <불교신문 50년사(史)>를 발간했다.

김하영 기자 hykim@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bulgyo.com



불교신문 발행인,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불교가 세상과 소통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화합을 이끄는 사회의 목탁이 되어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코이케 류노스케 1978년생, 2003년 도쿄대(東京大学) 교양학부를 졸업했으며 현재 도쿄에 있는 케프도쿠지(慶徳寺)의 주지다. 웹사이트 '가톨릭신문/kyo300'을 열어 직접 그린 만화의 에세이를 통해 마음 다스리는 법을 소개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생각 버리기 연습', '정목 입문', '반공 입문', '위선 입문' 등이 있다.

일본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

동경대 출신의 신세대 스님이 들려주는 번뇌 청소법

번뇌 리셋

서른 살 젊은 스님이 선사하는 푹! 푹! 튀는 그림과 문장

단박에 / 집중적으로 / 현행범으로 번뇌 리셋하기!!!

2009년~2010년 일본의 독자들 단박에 사로잡은 번뇌 청소법!

코이케 류노스케 글 · 그림 / 이해연 옮김
 304면 / 값 13,800원

붓다브레인

Buddha's Brain
 the practical neuroscience of happiness, love & wisdom
 행복·사랑·지혜를 깨닫는 뇌과학

책 콘필드, 대니얼 J. 시겔 등 신경심리학과 명상 양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시 추천!
 압도적 다수의 독자가 쏟아낸 별 다섯 개★★★★★의 찬사!

2009년 11월 발간
 365페이지
 360쪽 | 신국판 | 18,000원

릭 콘필드·대니얼 J. 시겔 등
 장현갑·장주영 옮김

**언론이 주목한 책!
 독자가 열광하는 책!**

행복한 '의'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교과서

현대 뇌과학 연구의 집대성!
 더 나아가 우리 뇌를 질적으로 바꾸는 마음훈련·뇌훈련 지침서

2009년 11월 발간 이후 36주 연속 아마존닷컴(국내판) 베스트셀러!